



::성경과 유대인 IV

유대인들에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만큼 “땅”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호에서는 “성경과 유대인”의 네 번째 글로서

“약속의 땅과 유대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간 4회 걸쳐 연재된 “성경과 유대인”은

이번호를 마지막으로 종결된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알차고 새로운 기획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한다.

- 편집자

약속의 땅과 유대인

조성욱 << 총신교회 부목사 / 중동문제연구소 소장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바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왕상 4:25, 34; 히브리어 맛소라 본문 5:5,14).

성경은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고 말한다. 약속의 땅의 산물 7가지(밀과 보리, 석류, 감람, 대추야자, 포도, 무화과-특징은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이다) 중 대표급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땅과 민족을 상징하는 비유로 종종 사용되었다(아가서 전체, 이사야 5장, 요한복음 15장을 보라). 한국적 표현으로 비꾼다면 “무궁화 꽃과 진달래 꽃 아래서 한국 백성이 평안하다”일 것이다. 더욱이 부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상적 영토 개념 중 하나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 평안하였다는 것이다. “안

연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은 <에 라베타흐>로 뜻은 ‘안전히 앉아 있다, 두려움 없이 거주하다’이다.

하지만 유대 역사 속에서 성경의 땅은 유대인들에게 평안과 쉼만을 제공해 준 것은 아니었다. 땅은 번영기를 누리 그 땅의 백성에게 쉼을 제공해 줄 때도 있었지만 때론 그 땅의 백성을 토해 놓아 그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유랑의 길을 떠나보내기도 하였다. 유다 왕 웃시야 시대를 통해 유대인과 땅에 얽힌 매듭을 풀어 보자.

“웃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르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다(대하 26:9-10).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 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암 1:1).

웃시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우지야후> 곧, ‘여호와는 힘이시다’이다. 그의 다른 이름 아사라는 히브리어로 <아자르야후> 곧, ‘여호와는 도우미시다’이다(왕하 14:21; 15:8). 그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된 것은 역대하 26장 15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졌음이 두 이름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웃시야 왕은 유대 12대 왕으로 주전 788/7년부터-736/5년까지 분열된 남왕국을 52년 동안 다스렸다. 웃시야 시대의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1절-15장 31절, 역대하 26장,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이사야서의 웃시야에 대한 기록은 그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된 이사야 1장 1절과 6장 1절 외에는

밭의 보화처럼 이사가 전권에 걸쳐 흩어져 숨겨 있어 우리의 보화를 찾기 위한 땀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하 26:1).

웃시아 왕의 통치시대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번영기로 37년간 지속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26장 6-15절에 잘 나타나 있다. 웃시아는 서쪽 무역로(해변길)를 확보하기 위해 블레셋을 침공하고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드 성과 아스돗 성 그리고 훗날 구약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도시인 야브네(보통 얌니아로 부르며 주후 90년경 이곳에서 구약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를 점령하고 그 곳에 유다 성읍들을 건설한다(대하 26:6). 또한 남쪽 아카바 만에 있는 항구도시 에일랏을 건설한다(왕하 14:22). 웃시아는 서쪽 경계도 강화시키는데 암몬이 그에게 조공을 바친다(대하 26:8).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지역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웃시아 시대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이었다(여기서 상당부분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분열상황이 현존하여 웃시아의 영향력은 남쪽에만 국한



유대인들의 신앙에 따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쇠퇴기(그의 집권 후반기는 병으로 인해 별궁처리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통치한다. 대하 26:16-23). 그의 시대에 쇠퇴가 찾아 온 이유는 그의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한다.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 중략”(대하 26:16-21).

웃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와 이사야 선지자였고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선지자이다(미가 선지자는 웃시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나병에 걸린 뒤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할 때부터 활동한 선지자이다. 하지만 웃시야가 여전히 왕이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도 포함시켰다).

먼저 번영기에 활동한 선지자 스가랴를 살펴보도록 하자.

“웃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대하 26:4-5)

위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소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웃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알았다는 내용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선지자의 지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으로 번역

된 히브리어 본문의 원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이해도가 높았다” 혹은 다른 사본들(칠십인경, 시리아 역본, 타르굼 요나단 아람어 번역사본, 불가타 라틴 번역본)에 의하면 “묵시를 경외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각 사본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본다”는 의미의 <르앗>을 쓰고 다른 사본들은 “경외함”의 뜻을 가진 <이르앗>을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으로 한 시대에 번성기가 오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종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둘째, 그 시대 사람들(왕, 국민, 오늘날 대통령, 지도자, 국민-농민, 도시민 포함)은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

쇠퇴기는 왜 오는가?

웃시야 시대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왕이 강성하여지자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역할의 범주를 넘어선 일을 하게 됨으로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두 번째 이름인 아자리아와 같은 이름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대하 26:1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열왕기 기록은 웃시야의 이름은 아자리아라고 밝히고 있지만 역대기 기록은 이 이름을 그에게 사용하기를 거부한다. 단지 제사장 이름이 ‘아자리야’이며 역대하 2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표현에서 동사형태로 사용할 뿐이다(<야아즈레후> - ‘하나님이 그를 도울 것이다’).

우지야후(여호와와는 힘이시다)가 강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야아즈레후>). 그러나 자신이 왜 이렇게 번영과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자는 ‘아자리야’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웃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다(대하 26:10). 히브리어 원문에는 “땅을 사랑했다”(〈오헵 아다마 하야〉)로 되어 있다. 땅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

가? 흔히 부동산투기를 일컫는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땅의 의미를 알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 25:23).

둘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의 땅”(신 2:1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신 2:29),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신 3:18),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신 4:21).

셋째, 땅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포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레 18:28).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쁨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

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사 5:1-2).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포도원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 열매를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술틀을 파고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라던 좋은 포도 대신 들 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탄식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의미를 상실한 거주민 때문이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을 화있을뿐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찌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사 5:8-10).

정책입안자와 실행자들인 지도자들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이 자기 땅인 양 생각하여 가진 권력을 이용해 그 땅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오늘 의미로 아파트?)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토지용도변경을 하고 임의대로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에 그 땅에 재난이 오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사 16:10).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주제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한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시리니 …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사 24:1, 18-20).

그러면 땅의 회복은 가능한 것인가?

첫째,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부모 공경과 땅에서의 생명과 복을 연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땅은 부모와 같다. 우리의 육체는 땅을 재료로 해서 지음을 받았고 땅으로 돌아간다. 반면 우리의 영은 부모와 같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라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빠>(아람어로 “아비”)이라고 부른다. 뜻은 ‘원형’, ‘근원’, ‘원천’이다. 부모가 우리의 원천이듯이 땅은 우리의 원천이다. 그러니 땅을 부모 공경하듯 소중히 여기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라(신 5:12-15).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

에는 쉬리라”(레 26:34-35).

땅의 안식은 사람의 안식만큼 중요하다. 만일 사람으로 인해 땅이 안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이 거주민을 토해 낸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오늘날 우리가 겪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

셋째, 탐심을 금하라.

“네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신 5:21).

넷째, 여호와와의 법을 지키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신 6:1-3; 7:12-15).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주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도든지 산에도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 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신 8:7-10).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을 상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땅의 운명 혹은 땅에 삶의 터전을 세울 조건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즉 신앙에 의존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네가 건너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1-12).

역대기 기자는 웃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한 왕이었다고 기술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마디로 역대기 기자의 말처럼 거친 땅이다. 이 땅에 농사를 좋아하는 웃시야 왕이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평야와 평지에 목축을 장려하며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주어 농업의 부흥을 가져오는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가 역대하 26장에 나온다. 척박한 땅을 개간하느라 시편 기자의 말처럼 얼마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겠는가?(시 126:5-6) 척박한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데는 영국 속담이 말하듯이 정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Garden was not made by words). 한국인에게 선물로 주신 땅 금수강산은 아름다운 땅이요 하늘 지향적인 땅이다. 즉 하늘과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만 가장 아름다운 풍요를 가져다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웃시야 시대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풍요와 강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조성욱 숭실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충신교회 부목사와 중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있다.